

전라남도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선진지 비교시찰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2025년 7월



**고 흥 군 의 회**

## 목 차

I. 연수개요 .....	1
II. 연수일정 .....	2
III. 연수참가자 .....	3
IV. 방문 국가 개요 .....	5
V. 주요 방문지별 내용 .....	8
VI. 연수결과 총평 .....	23
VII. 연수자 소감문 .....	25
VIII. 붙임(기관변경) .....	27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 ▶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벤치마킹
- ▶ 청년 유출, 고령화, 지역소멸 등에 대응한 지속가능 및 주민주도형 재생사례 현장 방문

## I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25. 7. 2.(수) ~ 7. 5.(토) / 3박 4일
- 연수국가 : 일본
- 참여인원 : 43명(시·군의회 의장 17, 공무원 26)
- 보고서 대표 작성자 : 의장 이상주 외 2명
- 내 용 : 우수정책 현장 방문 및 자료탐구
- 주요방문지
  - 치바시의회
  - 사쿠라시의회
  - 이타코 시청
  - 가와바 전원프라자

## II

## 연수일정

일 자	장 소	교통편	현지시간	주요방문일정
7/2 (1일차)	도쿄	KE2139 전용차량	11:35 15:00	나리타공항 도착 치바시의회
7/3 (2일차)	도쿄	전용차량	10:00 14:00	사쿠라시의회 이타코 시청
7/4 (3일차)	도쿄	전용차량	11:00	가와바 전원프라자
7/5 (4일차)	도쿄	전용차량 KE2130	12:45	나리타공항 출발

### Ⅲ

## 연수 참가자

### □ 의장단 명단

연번	의회명	사 진
	성 명	
1	신 안 군 (협의회장)	
	이 상 주	
2	진 도 군 (부 회 장)	
	박 금 례	
3	영 광 군 (감 사)	
	김 강 현	
4	영 암 군 (감 사)	
	박 종 대	
5	해 남 군 (사무총장)	
	이 성 욱	
6	장 흥 군 (대변인)	
	김 재 승	
7	순 천 시	
	강 형 구	
8	나 주 시	
	이 재 남	
9	광 양 시	
	최 대 원	

연번	의회명	사 진
	성 명	
10	담 양 군	
	장 명 영	
11	곡 성 군	
	강 덕 구	
12	고 흥 군	
	류 제 동	
13	보 성 군	
	김 경 열	
14	화 순 군	
	오 형 열	
15	무 안 군	
	이 호 성	
16	장 성 군	
	심 민 섭	
17	완 도 군	
	김 양 훈	

□ 수행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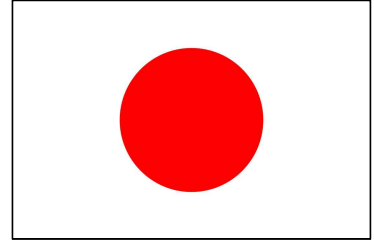
연 번	의회명	성 명	비 고
1	신 안 군	최 근 영	
2	신 안 군	이 승 환	
3	진 도 군	김 진 표	
4	진 도 군	김 준 남	
5	영 광 군	유 재 혁	
6	영 압 군	고 광 섭	
7	영 압 군	이 정 철	
8	해 남 군	정 규 홍	
9	장 흥 군	김 상 수	
10	장 흥 군	김 석 진	
11	순 천 시	서 승 환	
12	순 천 시	신 영 수	
13	나 주 시	김 정 응	

연 번	의회명	성 명	비 고
14	광 양 시	안 형 준	
15	담 양 군	김 찬 우	
16	곡 성 군	이 승 중	
17	고 흥 군	정 민 영	
18	고 흥 군	박 민 재	
19	보 성 군	김 수 철	
20	보 성 군	윤 승 범	
21	화 순 군	정 영 훈	
22	화 순 군	최 상 균	
23	무 안 군	이 종 환	
24	무 안 군	나 형 우	
25	장 성 군	김 영 완	
26	완 도 군	최 재 호	

## IV 방문 국가 개요

### 일 본

Japan



#### □ 일본의 일반사항

- 위 치 : 아시아 대륙 동쪽
- 수 도 : 도쿄(Tokyo)
- 언 어 : 일본어(Japanese)
- 화폐단위 : 엔(¥)
- 면 적 : 377,975km<sup>2</sup> (국토교통성, 2025년 1월 기준)
- 인 구 : 123,802,000명( 총무성, 2025년 4월 14일)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 : 천황(德仁: 나루히토)
- G D P : 4 조 1,864억 달러
- 종 교 : 신도(47.1%), 불교(42.9%), 기독교(2.7%) 등

※ 출처 : 외교부, KOTRA

#### □ 개 요

- 정식 국명은 일본국(日本國, Japan)이며, 동아시아 북서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로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의 4대 본섬과 약 6,800여 개의 부속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 총 면적은 약 37만 8천km<sup>2</sup>로 한반도의 약 1.7배이며, 인구는 약 1억 2,000만 명 수준이다. 수도는 도쿄로, 세계적인 금융·정치·문화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는 나라이다.
- 일본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 원수는 천황이나 실질적 정치는 국회와 내각이 담당한다. 행정구역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시정촌 체계도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다. 지방자치 제도는 1947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기초하며,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 일본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국가로, 무사문화와 선불교, 에도시대 건축, 전통 축제 등 다양한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있으며, 현대에는 애니메이션, 패션, 식문화 등 대중문화 영역에서도 국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전통 제조업 강국이자 정밀기계·자동차·로봇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첨단기술, 관광, 콘텐츠 산업에서도 활발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방소멸 문제도 국가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정치)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 국가로, 역사적으로 복합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한일 양국은 외교적 긴장과 협력을 반복해 왔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통해 새로운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최근에는 안보·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다.
  
- (경제) 일본은 우리나라의 3대 무역 상대국 중 하나로, 기계·부품·소재 등 제조업 연계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관광, 유통, 콘텐츠 산업 등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급망 재편과 기술 협력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 (사회·문화) 양국은 민간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문화·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K-POP, 영화, 음식 등 한류 문화는 일본 전역에 확산되어 있으며, 반대로 일본 애니메이션, 문학, 전통 문화도 국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V

# 주요 방문지별 내용

## 1

### 치바시의회

방문지명	치바시의회	
방문일시	2025. 7. 2. (수) 15:00	
장소	千葉県中央区千葉港1番1号 千葉県役所低層棟4階	
참석자	마츠나카 요시노리 치바시의회의장 외 관계자	

- 치바시의회는 인구 약 98만 명의 정령지정도시인 치바시를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 5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쿄 동쪽에 인접한 치바시는 상업, 행정, 교통, 교육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대도시이며, 의회 또한 이에 걸맞게 도시 전반의 복지정책, 도시개발, 환경, 디지털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과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특히 치바시는 디지털 기술과 도시계획을 통합한 스마트시티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의회 역시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조정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정책 형성과 실행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 것이 인상적이었고, 민의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 현장에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회의 주요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치바시의회는 내부 정책연구조직과 외부 전문가 자문을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조례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구조로 보였다. 이 같은 시스템은 현재 전라남도 시군의회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와 의정자료 분석 TF 운영에도 참고할 수 있었다.

- 또한 정령지정도시라는 위상에 맞게 의회의 자율성과 권한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데 위원회 중심의 정책 조율, 통합 감사, 정책 실명제 등은 치바시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요소였고, 이러한 운영 방식은 향후 전남 지역에서 광역 행정 협력사업이나 자치권 확대를 준비하는 데 현실적인 벤치마킹 자료가 될 수 있다.
- 시민 참여 기반도 잘 갖춰져 있었다. 지역주민의 제안과 청원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과 오픈간담회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는 절차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 전반적으로 치바시의회는 대규모 도시행정과 기초의회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사례로, 정책 전문성 강화, 행정 협치, 주민참여 확대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었다. 지방의회가 독립됨에 따라 정령지정도시급 기능 확장을 추진하게 될 경우, 치바시의 사례는 제도 설계와 운영 전략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 정령지정도시는 일본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중, 내각이 정령으로 지정한 도시를 말하며, 일반 시보다 더 넓은 자치권을 가진다

□ 치바시의회 방문 사진



치바시의회 환영문구



치바시의회 운영방식 설명




주요정책 질의 응답



치바시 시의회 방문기념촬영

## 2 사쿠라시의회

방문지명	사쿠라시의회	
방문일시	2025. 7. 3. (목) 10:00	
장소	千葉県佐倉市海隣寺町97番地	
참석자	조지 무라시 사쿠라시의회의장 외 관계자	

- 사쿠라시는 일본 치바현 북부에 위치한 인구 약 17만 명의 중견 도시로, 도쿄 수도권과 인접하면서도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복합적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역 특성은 사쿠라시의회의 의정 방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총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교육, 도시 정비 등의 분야에서 생활 밀착형 조례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최근에는 고령화, 외국인 인구 증가, 지역 커뮤니티 약화, 도심 재생 등 복합적인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입법 활동과 행정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 조직 구조와 고령화된 인구 구성, 청년 유출로 인한 공동체 약화 등은 전라남도의 군 단위 의회가 직면한 현실 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 사쿠라시의회의회는 주민참여형 정책 결정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 단위에서 올라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구성하거나 행정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전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읍면 간담회나 찾아가는 의정활동과 유사하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다.

-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언어지원, 보육기관의 수용 역량 강화, 지역 내 문화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제도를 조례화하고 실천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 유입자,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이 증가하는 전남 지역에서도 시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사쿠라시는 중견·소규모 도시임에 예산과 인력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실제 의회의 정책적 역량은 조직 구조보다는 기민한 대응 시스템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이에 관련 분야별 작은 특별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거나, 의원 간 협업을 통해 정책연구형 입법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라남도의 소규모 군 의회가 인구감소와 같은 장기 구조적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 도시와 농촌의 복합 구조 속에서 소규모 의회가 지닌 현실적 한계를 오히려 장점으로 바꾼 사례로, 실용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특히 생활정책 중심의 입법, 주민 참여 확대, 다문화 사회 대응, 협치 기반의 정책 추진 등은 전남의 자치 환경과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실질적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사쿠라시의회 방문 사진




사쿠라시의회 설명 및 질의 응답



사쿠라시의회 방문 기념촬영

## 3

## 이타코시청

방문지명	이타코시청	
방문일시	2025. 7. 3. (목) 14:00	
장소	茨城県潮来市辻626	
참석자	스가 기획정책과장 외 관계자	

- 이타코시는 일본 이바라키현 남부, 가스미가우라호 인근에 자리한 인구 약 2만 7천 명의 소도시로, 수로와 전통 문화가 살아 있는 관광 도시다. 오래전부터 수상 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매년 5~6월 아야메 마쓰리(꽃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전체가 함께 준비하는 대표적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상 퍼레이드와 전통공연이 어우러져 일본 전국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 기획정책과 관계자의 설명을 통해 이타코시의 행정 방향은 첫째는 지역 자산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둘째는 고령화·인구감소 대응에 초점이 있다 했다. 그중 옛 가옥 활용 숙박시설 사례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관광으로 연결해 소득화하는 방식으로, 인상 깊었다. 약 120년 된 전통 목조가옥 이소야마택을 리모델링해 전세형 숙소로 운영하고 있었고, 내부에는 주방, 숙박 공간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그 자체가 문화재이자 관광 콘텐츠인 셈이었다.
- 이소야마택은 단순히 오래된 집을 보존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의 빈집 문제와 관광 자원을 한 번에 해결한 사례였다.

- 시가 공공 정책 차원에서 리모델링과 행정 절차를 지원했고, 지역 주민과 민간이 운영을 맡았다. 숙박 외에도 다도 체험,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식사, 전통문화 강습 등 복합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이처럼 전통 자산의 재해석, 행정과 민간의 협업, 주민이 참여하는 운영 구조는 현재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귀촌 정책, 빈집 재생, 지역 특화 관광정책과 높은 접점을 가지고 있다.
- 또한 이타코시는 단순히 관광에 그치지 않고, 관광 수익 일부를 지역 복지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축제 수익은 지역 기금으로 적립되어 고령자 교통비 지원, 지역 공원 조성, CCTV 설치 등에 쓰인다. 이 같은 순환 구조는 단순히 이벤트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했다.
- 마지막으로, 시청 관계자는 “관광은 행정의 외연이 아니라 중심이며,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는 말을 남겼다. 실제로 이타코시는 지역 상공회의소, 농협, 학교,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업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관광 콘텐츠 또한 외부 기획자가 아닌 지역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 이타코시의 사례는 소도시이면서도 행정의 유연성, 문화자산의 경제화, 주민참여라는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룬 실질적인 지역재생 전략이었다. 이는 전남의 군 단위같은 관광·농어업 복합지역에서도 참고할만한 방향성이라고 생각되어진다..

□ 이타코시청 방문 사진



이타코시 사례 및 주요정책 설명



노후주택을 활용한 이소야마댁 리모델링 사업




주민 참여형 공동체 활동



수상교통을 이용한 관광 상품

## 4 가와바 전원프라자

방문지명	가와바 전원프라자	
방문일시	2025. 7. 4. (금) 11:00	
장소	378-0101 群馬県利根郡川場村大字萩室385	
참석자	가와바전원 프라자 관계자	

- 가와바 전원프라자는 일본 군마현 가와바촌에 위치한 복합형 농촌체험·관광단지다. 인구 약 3천 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도쿄에서 차량으로 약 2시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마을 전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 전원프라자는 단순한 농산물 직판장을 넘어, 특산품 가공공장,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식당, 마을 체험 프로그램까지 아우르는 일상과 관광의 경계가 흐려진 공간이다. 무엇보다 행정이 주도하는 모델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민간기업이 공동 운영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이 다시 지역 복지와 공동체 유지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 지역 농업을 6차 산업화한 사례로서도 매우 구체적이다. 마을에서 생산한 유제품·사과·포도·쌀 등이 가공되어 프리미엄 디저트로 상품화되고, 이 제품을 만든 공간에서 바로 식사나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이는 전남의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마을가공센터와 비교해도, 상품기획과 공간설계, 운영방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지점이 많다.
- 전원프라자의 또 다른 특징은 ‘촌’의 이미지를 재구성했다는 데 있다. 깔끔한 디자인의 건물 외관, 통일된 안내 시스템,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 덕분에 단지가 전체적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풍긴다. 전원프라자 관계자는 “시골이지만 도시보다 편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전체적인 구상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세심한 고민이 있었는지 현장에서 느껴졌다. 전남에서 진행 중인 농촌관광개발이나 청년마을조성사업에서도 이 점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 단지를 둘러보며 인상 깊었던 부분은, 관광객을 잠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구조였다. 단기 체류가 아닌 장기 방문과 정착을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었고, 이는 청년 유입이나 귀촌 정책과도 맞물릴 수 있는 지점이었다.
- 가와바 전원프라자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설계한 복합 경제 모델이라는 점에서 전라남도의 농산어촌 정책에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특히 마을경제 순환 구조, 6차 산업화 체계, 브랜드 전략,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운영방식은 전남 각 시군의 브랜드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가와바 전원프라자 방문 사진



가와바 전원프라자 현장 설명



가와바 전원프라자 실제 이용 사례



로컬푸드 산업화 활성화 상품



가와바 전원프라자 기념촬영

- 이번 일본 연수는 전남 시군이 직면한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경제 침체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현지 방문을 통해 각 지역이 처한 상황과 주민 중심의 대응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특히 고령 인구 증가와 청년 이탈, 공동체 약화 문제는 우리 전라남도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일본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원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경제 활력과 공동체 회복을 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예를 들어, 이타코시는 노후화 된 전통 가옥을 체류형 관광 자원으로 활용했고, 사쿠라시의회는 육아와 교육, 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해 생활 밀착형 의정을 실현하고 있었다. 또한, 가와바촌은 인구 3천 명의 농촌 마을임에도 주민 주도 6차 산업 복합단지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경제 자립을 이루고 있었다.
- 전라남도 역시 인구 고령화와 청년 유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연수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도내 여러 시군의 현실에 맞는 실천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 이처럼 현장 사례들은 전남 시군의회가 단순한 행정 감시를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주민과 함께 실행하는 정책 주도형 의회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 앞으로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전통 자산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주민 주도 경제 모델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관광 수익이 주민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 이번 연수는 전라남도 지역 자산을 토대로 자치를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지역 맞춤형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활력 있는 지역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총평(시사점)

- 이번 일본 선진지 비교시찰은 지역소멸과 고령화, 청년 유출 등 우리 지역이 당면한 현실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진단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들은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자립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 구조, 정책 개발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은 고흥군의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는 지방의회가 단순한 감시기관을 넘어,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 설계자이자 지역 재생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논의와 조례 제정,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에 있어 의회의 능동적 개입과 전략적 리더십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 □ 정책제언

### ○ 의회 정책역량 및 주민소통 체계 강화

- 정책개발비 도입, 전문보좌 인력 확보 등 정책설계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 의정활동 공개 확대, 주민 정책공모, 보고회 정례화를 통해 실질적 소통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주 및 경제 기반 확충

- 귀농귀촌 정착지원, 다세대 주거모델, 관광과 일자리 연계정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조례 마련이 필요합니다.
- 지역 특화자원(농업·역사·문화)을 활용한 체류형 경제모델 설계에 의회가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 ○ 복합문화공간 및 생활SOC 고도화

- 도서관·커뮤니티·청년공간이 결합된 복합시설 사례를 반영해 고흥군의 문화·소통 인프라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 향후 복합문화센터, 작은 영화관, 읍면 생활센터 등이 정책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 ○ 주민 주도형 지역공동체 모델 육성

-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공동체 기반 경제모델 육성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의 자생력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 ○ 이번 연수는 고흥군의회에 실천적 의정활동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운영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통찰과 실마리를 제공한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수신 | 전라남도시군의장협의회장

제목 「2025년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선진지 비교시찰」 일정 변경 안내

1. 귀 협회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2025년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선진지 비교시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일차(7월 3일) 방문 예정이던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이 부득이하게 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방문 목적 및 연수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대체 가능한 기관으로 일정을 조정하였으니 아래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변경 전 방문지	변경 후 방문지	변경 사유
2일차 오전	이스미 시의회 (이스미시, 치바현)	사쿠라 시의회 (사쿠라시, 치바현)	해당 기관 내부 일정 사정으로 인해 수용 불가
2일차 오후	지바현 커뮤니티 마을 (가모가와시)	이타코 시청 (이타코시, 이바라키현)	해당 기관 내부 일정 사정으로 인해 수용 불가

붙임 변경 일정표(1부)

(주) 한별여행사



담당 : 김선영 과장

우 57150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29 함평신문사 내  
E-mail : hb-tour@hanmail.net TEL : 061)324-9082

시행 2025.06.27.  
FAX : 061)324-9081